







농업전선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에서 전환을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

원 산 농업 종합 대학 에서

백두산위인들의 헌명한 영도와 뜨거운 열정에 따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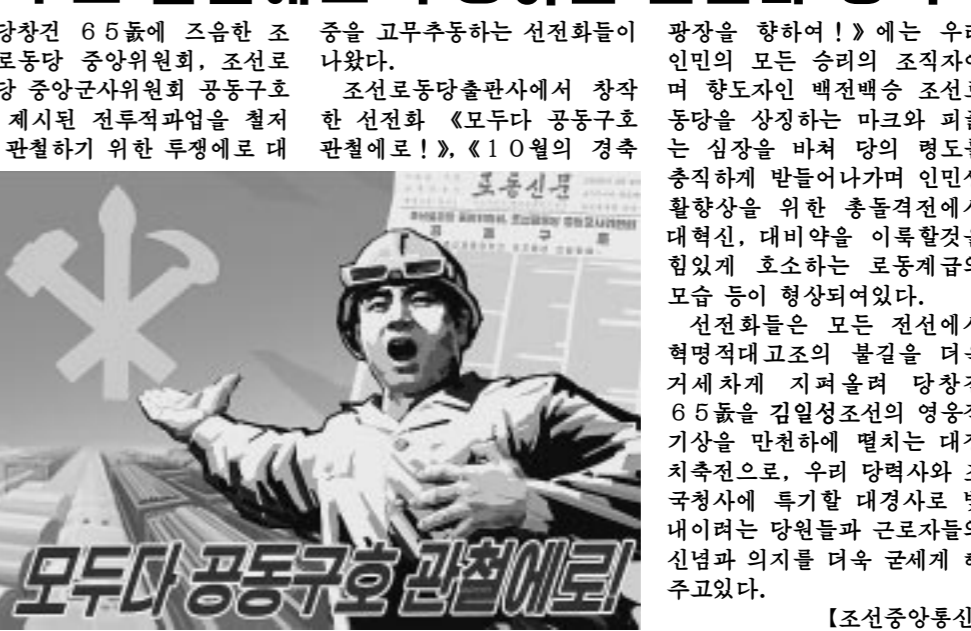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신념의 맹세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 관철에로 추동하는 선전화 창작



모두다 공동구호관철이리

불철위생월간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 집과 일터를 비롯한 생활환경을 새시대의 맛이 나게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연구자(이머 농업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인 원산농업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연구자(이머 농업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인 원산농업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연구자(이머 농업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인 원산농업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연구자(이머 농업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인 원산농업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연구자(이머 농업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인 원산농업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다.》

농장에서 은을 내는 현지학습반 문덕 농업전문학교에서

농장비가 들끓고있다. 적체함마다 질서를 거름을 가득 싣고 포전길로 달려가는 트랙터들, 포전의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길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더미들은 볼수록 흐트러진다.

농장비가 들끓고있다. 적체함마다 질서를 거름을 가득 싣고 포전길로 달려가는 트랙터들, 포전의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길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더미들은 볼수록 흐트러진다.

농장비가 들끓고있다. 적체함마다 질서를 거름을 가득 싣고 포전길로 달려가는 트랙터들, 포전의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길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더미들은 볼수록 흐트러진다.

실험실습교육에 힘을 넣어 선천농업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학생들을 능숙하게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는 데서 중요한 단계인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학생들을 능숙하게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는 데서 중요한 단계인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김철의 기상을 펼쳐갈 드높은 열정 김책제철련합기업소체육단에서

김철의 기상과 본래로 체육단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이 김철동지께서 편지

김철의 기상과 본래로 체육단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이 김철동지께서 편지

김철의 기상과 본래로 체육단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이 김철동지께서 편지



경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비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비결이 있었다. 2년전 1월, 이 공장 종업원들의 마음은 어느때없는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당의 은성인민 조처에 따라 보건성을 비롯한 관련부문 일꾼들의 도움으로 건강하던 많은 자체력이 해결되었던것이었다.

독자의 편지 <누구나가 안겨삼니다>

저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잘 알고있는 녀성입니다. 하지만 저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웃음 질러놓던 우리 집에는 한해전부터 뜻밖의 일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